

근대이행기 규방가사와 공적 제도로서의 학교*

- <생조감구가>를 중심으로 -

유정선**

<차례>

1. 머리말
2. 자기 삶에 대한 회고의 시선
 - 1) 자기서사, 자탄의 언어와 특이적 언술의 교차
 - 2) 장면의 재현을 통한 성공의 서사
3.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학교를 향한 시선
 - 1) 세대 풍속의 단면으로서의 학교
 - 2) 여성 간 사회적 위계의식의 형성과 지적 욕망
4. 근대이행기 구여성과 학교
 - 1) 기표로서의 학교, 반감과 동경의 공존
 - 2) 공적 영역으로서의 '기의'(記意)와 사회적 자아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이행기에 창작된 규방가사 <생조감구가>를 중심으로, 이 시기 구여성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19세기 말 설립되기 시작한 학교는 근대 제도의 산물로서 지식과 문화를 교육하는 장이다. 학교의 설립으로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출현하고, 여성들도 지식을 전수받고 공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시기 학교라는 키워드는 여성들의 지식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공적 세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활동욕구 등을 반영하는 유의어였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작품인 <생조감구가>에서 구여성인 작가 이사호는 학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668)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교를, 여학생 존재라는 기표를 통해 이해하였다. 작품 속에서 학교는 당대 세태 풍속을 이루는 한 단면이자 ‘구식’과 대비되는 신문화의 하나로, 신여성인 여학생의 존재와 동일시되어 이해되고 있었다. 그 결과 학교는 여학생의 행태인 자유연애, 이혼 등의 세태와 결합된 장으로 인식되었고, 학교를 윤리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여학생 존재는 지적 욕망과 함께 상대적 결핍의식을 환기하기도 하였다. 학교는 구여성과 신여성을 가르는 외연적 지표가 되었고, 여학생의 출현으로 인해 여성 간 사회적 위계의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당대에 구여성의 무식이 이혼 요구의 명분으로 내세워졌던 상황에서, 작가는 여학생의 신지식이나 도덕성보다 구여성의 지혜와 부덕이 우월함을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옹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긍심이 자신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지식과 학문 자체에 대한 욕망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여학생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지식의 문제는 구여성에게 상대적 결핍감을 조성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여학생과 동일시됨으로써 학교의 출현이 구여성들의 의식세계에 미친 파급력은 크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구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욕구가 정체된 것은 아니었다. 구여성들은 전통과 가문이라는 집단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그 안에서 개인의 사회적 인정욕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항일의식을 표출하였다. 이는 사적 영역에 갇힌 현모양처나 수단적 의미로서의 희생적 모성과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근대이행기, 규방가사, 생조감구가, 학교, 구여성, 공적 제도, 지식, 사회적 성취 욕구, 여학생

1. 머리말

20세기 초인 근대이행기는 신, 구 문화가 교차하고 접변하는 시기로,

이 과도기를 통과하며 여성들의 삶과 의식세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중 규방가사의 작가들은 신여성과 대비되는 구여성들로서,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이 다수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삶을 유지해온 구여성들인 규방가사 작가들의 경우에도, 이 시기 그들의 의식과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당대의 조류인 신문명과 매개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설립되기 시작한 학교는 근대제도의 산물로서, 지식과 문화를 교육하는 장이다. 또한 학교는 여성에게도 허용된 사회적 제도이자 공적 공간이다. 비로소 학교라는, 여성에게 허용된 공적 영역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공간이 출현한다. 이에 이 시기 학교라는 키워드는 여성들의 지식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공적 세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활동 욕구 등을 반영하는 유의어가 된다.

그런데 근대이행기의 학교는 실질적으로 매우 한정된 여성들에게만 허용된 곳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구여성과 신여성을 가르치는 외연적 지표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구여성들인 규방가사 작가들에게 학교는 실질적인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풍문의 대상에 가까웠다. 이렇게 ‘학교’ 밖에 있었던 구여성들은 ‘저’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풍문의 대상이었던 학교는 구여성들의 의식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증을 낳는다. 무엇보다도 지적 욕망은 그간 규방가사 작가들의 내면에 가장 크게 자리했던 것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사호의 가사 <생조감구가>를 중심으로 구여성이 생각했던 학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생조감구가>는 1,700여 구의 장편가사로서 처음 개화기 서사가사로 학계에 보고되었다.¹⁾ 이후 지은이가 이사호로서, 1930년 자신의 회갑을 맞이하여 쓴 것임이 밝혀졌다.²⁾ 작가 이사호는 영남의 대표적인 재지사족 출신의 의병장 이증린의

1) 이상택, 『개화기 서사가사시고』, 『진단학보』 39, 진단학회, 1975, 139~160쪽.

딸로서 1886년 경 회재 이언적의 12대손인 이소구와 혼인하고 있다.³⁾ 이와 함께 작품 <생조감구가>는 위정척사와 집안의 여성인 작가가 항일의식, 전통적 가족의식의 위기와 반근대 의식 등의 구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⁴⁾ 등이 고찰되었다.

이렇게 구세대의 보수적 가치관이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 작품 속에서 ‘학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주목된다. 이 작품은 1930년에 지어졌지만 1870년에 태어난 지은이가 근대이행기를 통과하며 시대적 조류를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온 기록이다. 이에 전통적인 소양을 내면화해온 당대 구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식을 그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여기에서는 <생조감구가>를 중심으로,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유교 이념을 내면화하고 있었던 구여성들에게 학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탐색해보기로 한다.

2. 자기 삶에 대한 회고의 시선

1) 자기서사, 자탄의 언어와 특이적 언술의 교차

이 작품은 노경에 든 작가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쓴 회갑수연가이다.⁵⁾ 이는 자신의 일생을 전체로 성찰하는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자기서사⁶⁾, 또는 자전적 가사이자 생애담⁷⁾에 해당한다. 지은이인 ‘나’가

2) 장인진·남상권, 『<생조감구가>의 작가고증과 작가 가문의 항일운동』, 『반교어문연구』 20집, 2006, 143쪽.

3) 장인진·남상권(2006), 위의 논문, 141쪽.

4) 남상권, 『생조감구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288~94쪽.

5) 장인진·남상권(2006), 앞의 논문, 141쪽.

전면에 내세워지고 자신을 중심으로 지나온 일생을 돌아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성장과정과 혼인, 그를 둘러싼 가족과 집안사 등을 반추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작품⁸⁾의 전체구성은 크게 ‘성장과정-혼인-시집살이-현실에 대한 소회’로 구성된다. 이때 한 여성이자 딸, 한 집안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위치를 넘나들며 관심의 범위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부터 가문, 국가로 확장하여 나아간다.

(1)성장과정: 부모의 귀애를 받으며 성장, 6세에 어머니 잃음, 아버지의 함경도 유배 (1구~127구)

(2)혼인과정: 혼인식, 부모형제와의 이별 후 신행길에 오르는 과정 (128~283구)

(3)혼인 후 생활: 친정아버지의 유배와 해배, 의병창설과 강제합병의 현실 비판, 시어머니의 죽음, 자식양육의 어려움, 시부모 모시기, 손님접대, 집안 살림살이, 남편받들기 등을 수행하며 겪은 노고 (284~600구)

(4)현실에 대한 소회: 개화문명의 허명, 자유연애와 이혼요구·여학생의 행태 등 세태 비판,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 (601~1116구)

(5)회갑연: 성대한 회갑연을 치르며 친지들과의 만남과 감회(1117~1708구)

(1)‘**성장과정**’에서는 유년시절 귀애를 받으며 자란 딸이었다는 자부심, 친정부모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집안의 쇠락에 대한

6) 박혜숙·최경희·박희영,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문화연구』 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4쪽.

7) 박애경, 『규방가사의 지역별 변주와 글쓰기 방식의 다양화 1-경화사족 여성의 규방가사 창작과 향유』,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220쪽.

8) 본고에서는 이대본으로 알려진 텍스트로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5집에 소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분노와 안타까움을 회고한다. (2)‘**혼인과정**’에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유배 후 불안함 속에 혼인식을 올리게 된 과정, 가족들과 이별하고 신행길에 올라 시집인 양동마을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등이 그려진다. (3)‘**혼인 후 생활**’에서는 친정 아버지의 유배 및 해배와 의병 창설의 경위가 다루어진다. 이어 ‘사구고(事舅姑)-사군자(事君子)-육아(育兒)-접빈객(接賓客)-치산(治産)-어노비(御奴婢)’ 등 계녀가에서 언급되는 덕목들에 대응시켜 자신의 노고를 이야기한다. 즉 삼종지의의 이념에 맞추어 사회적으로 권장되었던 덕목들을 일정하게 배치하고 그것을 수행하며 겪었던 애로를 읊는다. 이 부분에서는 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지난한 시집살이의 어려움에 관해 회고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에서 왔었던 어려움, 여성에게 주어지는 억압에 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사이사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술에는 고난을 극복해내었다는 득의적 태도가 깔려 있어, 자신의 공로를 알리고 그 노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볼 수 있다. 지난했던 삶의 굴곡들을 극복해왔다는 자기현시와 자기합리화⁹⁾의 의도도 엿보인다. 여성이자 며느리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살림살이를 이끌어 온 것, 이 집안 나아가 가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완수자였음을 공표하고 있다. 자신이 집안일을 잘 다스려왔음을 언표하면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또한 사이사이 여성의 부덕에 어긋나는 반면교사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교훈과 권계의 내용을 전달한다.

따라서 한 집안의 약자인 며느리로서의 목소리와 함께 집안을 지탱해 온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삶의 경험을 들려주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공존한다.¹⁰⁾

9)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고전문학연구』 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253쪽.

(4) ‘현실에 대한 소회’에서는 집안사의 회고에서 나아가 대외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시선을 당대의 현실로 옮겨 당대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피력한다. 이는 친정아버지가 의병을 설창하고 항일투쟁을 벌인 일, 상소를 올리며 실정(失政)에 대해 충간한 일 등 친정의 가족사와 관련되어 있기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길게 확장되어 있고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살아온 전통적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즉 이렇게 외부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은이의 인정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곧 구여성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라는 최종적인 자평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전제이기도 하다. 전통적 의식에 따라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며 옳은 것이라는 자평, 그리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에 따른 것으로 그만큼 현재의 신문물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표출이 수반된다.

(5) ‘회갑연’에서는 이제 노경에 든 자신의 일생을 성공의 서사로 마무리하는데¹¹⁾, 이는 성대한 회갑연의 광경으로 현시된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잔치이면서 여태까지의 자신의 노고에 대해 보상을 받는 장면이다. 자녀들, 손주들, 친지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외형을 묘사 재현하고 있는 모습에는 당당하게 일가를 일구어낸 자부심이 배어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에서는 자탄의 목소리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

10) “무셔우니 무셔우니 시집사리 무셔우니/ 울울사록 틈산이오 건널사록 김흐니라/ 가시시췌 쇠집이오 원슈슈췌 슈숙말은 /옛말한말 그러한가” · “무심범범 저노인은 남의 사정 모르시디/ 약관시절 귀향와셔 한기신 위리안치/ 죄나있셔 흥였건만 무죄한 귀향스리/ 무기로 사십여년 쥘미고역 영리제리/ 무산적원 구속하고 압지터니/ 나든날도 모르나네”

11) 자기서사를 성공의 서사로서 기술하게 된 근거는 모두 기본적으로 자신이 훌륭한 아내 어머니 며느리였다는 사실이다.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 『여성문학연구』 8호, 2002, 311쪽.

혜라는 교훈적 목소리가 공존하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회현실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2) 장면의 재현을 통한 성공의 서사

작품 속 작가의 인생은 희노애락의 감정적 진폭에 따라 움직이는 한편의 드라마이다. <생조감구가>는 과거를 단순히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을 해석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¹²⁾ 즉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계기적 장면들을 상세히 재현해내는 것으로 구성한다. 혼인날 장면, 신행 장면 등을 계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지난했던 삶이 재현된다. 혼인 당일의 정경에서는 예기치 않게 신랑행차가 지연되면서 벌어지는 광경을 묘사해냄으로써 긴박하고 불안했던 심경이 세세하게 그려진다.

혼인날 석양까지 남겨는 아니오니/ 만당에 모힌빈긔 일제히 흐느말이/ 위
협한 이집소문 그집이 드른모양/ 퇴혼은 정녕하다 여괴슈근 저괴슈근/ 손이
귀가 기다드니 첫말이 드러오니/ 슈렴하고 안진신부 천스만여 슈치하괴/ 치
신무지 아닐런가 십리오리 척후회보/ 그림즈도 업더라니 한출침빅 일모흐
여/ 오느선성 곡등이 소요흐며 일형이 다쳐쑤나

혼인 당일 석양 무렵까지 신랑이 도착하지 않자 신부 아버지의 유배로 인해 파혼당한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수군거린다. ‘십리 밖 오리 밖’으로 신랑 행차를 알아보러 간 이들에게서 ‘그림자도 없더라’는 소식을 들으며, 치장하고 앉아있는 신부는 몸 둘 바를 모르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혼한 후에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집안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힘겨운 시절을 보낸다.

12) 남상권(2006), 앞의 논문, 276쪽.

강보유치 팔구숙딜 유모가 몇몇치며/ 유모즈식 삼스인식 노비아히 몇몇
친고/ 무부모 고헌경지 옷지어 머리 췌겨/ 시간만 츠지흐니 모도단발 장슈
하나/ 안즈스니 관운장 김유신에 진기런가/ 잠잘줄 몰라스니 진도관에 후신
인가/ 죠석으로 계테문에 오음늑를 풍악이니/ 선화당이 이아닌가/ 장느긔히
울음이오 노던긔히 사흙이라/ 만당에 분집이오 밥오집이 합천이라

자신의 자식과 유모의 자식, 친지의 자식까지 십여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광경이다. 그 많은 아이들을 ‘옷 지어 입히고 머리를 빗기는 시간만도 오래’이며, ‘장난 끝에 울음이오 놀던 끝에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철로도 불통’했던 시대에 ‘매일매일 바쁘게 새벽밥 짓고 동동거리며, 밤이면 여러 옷을 짓느라 마음 급하기가 주마(走馬)’ 같다.¹³⁾

또한 형제와 자녀들의 혼수를 마련하던 시절에는 ‘자신의 안목에도 허무한데 사돈의 안목에는 어떠한 것인가’ 송구 불안한 마음이며 ‘금침도 수십 채, 상하의만도 수백 죽을 마련해야 했기에 마름질에 못이 박힐 정도이다.

형제와 자녀들아 농동의복 치흔범빅/ 보암즉시 아니호여/ 낙안목에 허무
하니 사돈소욕 가당할가/ 송구불안 이것마는 금침으로 이튼디도/ 팔팔이 육
십사에 상하의 슈빅죽을/ 손간거신 말도말고 장녀영위 엇셔턴고/ 오리오리
정성영위 데이길일 톱취호여/ 말음질에 못박히고 썸썸이/ 만복축슈 십죽인
혼자할적 디연소연 몇번인고

그런데 남편은 무심함 속에 내간사정은 잘 알지 못하면서 “양식과용

13) “철노불통 그시디에 기황에 환심적몰/ 스망이 총총할적 그스럼 엇셔튼고/ 식벽밥 인
마등디 노비전답 실시할가/ 동동축축 빅리힝보 밤이면 죽움지어/ 등등이 덤즈흐니 마
음급기 주마갓고/ 삼사월 긴긴히를 긴줄을 어이알며/ 동지장야 덧업스니 열손가락 계
비노덧”

척망”하고 시부모의 호령은 “오늬월 급한 비이 뇌정벽력 나리신 듯” 하다.

이렇듯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려웠던 시집살이의 일상들이 세세히 묘사된다. 또한 얼마나 세심하게 아이들을 건사하며 보살폈는지에 대해 말하며 구구할 정도로 병질과 그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열거한다.¹⁴⁾ 이와 같이 구체적 생활감정과 결합한 묘사 또는 대상의 재현은 당시 구여성들이 살아온 삶의 구체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젊은 시절의 고생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는데, 지금 자신이 살아온 전통적 여성으로서의 삶은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당대의 시대적 조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당대 새롭게 부상한 신문명과 세태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구식의 인습들과 마찰하며 충돌한다.

이에 따라 구여성인 자신의 구식 삶, 구식 사고가 신문물에 의해 어떻게 부정되고 무시되는지, 그리하여 신문물은 어느 지경까지 타락을 조장하는지를 말한다. 이러한 신문명을 숭상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 속에서 학교가 언급된다.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세태와 대조되는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라는 의식으로 수렴되고 있어, 일생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회갑연이 확장되어 재현된다.

연석을 포진하니 산수병 화초병을/ 좌우에 두리치고 화문석 자리우히/ 두노인 좌경하니 동귀동반 열석이라/ 팔남미 촛린큰상 티산갓치 괴운모양/ 동서양 각국실과 오형으로 글즈식여/ 틱극으로 우를답혀 사시절화 그림노하/ 오식이 영농하 (중략) 짝어도 못먹든술 두귀밋치 훗하트여 어나넛 등이굽니

14) “식렬에 썩 씨구리 쥐고기 비아탕/ 비아환이 복학일학 칠계고음 영스쥬/ 안삼탕애 감기치침 사향응담 포룡환에/ 마진역질 구두고음 쇠소리집/ 동희하면 오미성유 이등탕 독심탕애/ 보원으로 궁장어 쥬어고음/ 작만키는 늬가하며 먹이기는 늬가할쇼”

우아한 그림의 병풍으로 둘러싸여 동기종반들이 열석한 가운데 ‘태산 같이 괴운’ 음식, ‘팔남매가 차린 큰 상’의 잔칫상을 앞에 놓고 화문석 위에 좌정한 두 노인은 자식의 공경과 일가의 축복 속에 기뻐하고 있다.

이렇듯 일생의 배치는 결말 부분에서 회갑연의 성대한 광경이 확장되어 재현됨으로써 성공의 서사로 마무리되고 있다. 성대한 회갑연의 정경은 지은이의 일생이 성공적이었음을 감각적으로 재현해준다.

3.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학교를 향한 시선

1) 세태 풍속의 단면으로서의 학교

지은이가 학교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은 위에서 살펴본 작품의 구성상 당대의 현실과 세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맥락에서이다. 당대의 국가 현실로 시선을 돌리면서 학교는 신문명의 한 요소로 등장한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 속에서 학교가 전면으로 부상하는 것은 현실인식 나아가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맥락 속에 자리한다.

학교는 당대 세태 풍속을 구성하는 한 단면으로서, 특히 여학생의 존재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학교는 여학생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각인되면서 종종 신여성인 여학생의 존재와 동일시된다. 그 결과 학교는 공적 제도이자 지식의 집합체로서보다 여학생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소위신식 트리머리 몽당치마 긴다비/ 장강치귀 췌쪽구두 학교출신 자랑
 하고/ 일어마디 아는자처 지육상식 유려한처/ 사리마다 전체형상 듯기도 히
 참한디/ 교언영식 애힝이니 산보이니/ 그중에 금슈지행 금석같은 정을 찌고

신여성의 표지인 “트리머리, 몽당치마, 셋썩구두”의 외양으로 특징되는 여학생은 ‘학교출신’임을 자랑하고 ‘일어마디를 안다고 자처’하지만 ‘사리마다 어긋나서 듣기에도 놀랍고 부끄럽다’고 한다. 작품 속에서는 학교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 당대 세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여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학교는 중심 이미지를 형성하는 여학생과 결합되어 있고, 이때 여학생은 전통적인 제도와 관습에 반항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는데, 특히 자유결혼이나 자유연애의 세태와 연관되어 이해된다.¹⁵⁾

그 결과 불륜의 정을 나누는 부정적인 남편들의 연애 대상으로서 여학생의 형상이 등장하며, 조강지처를 음행죄로 얹어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행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으로 나타난다.

불고이취 못한 법을 연이 결혼 즈유흔도/ 밋을슈 업난 세월 연이욕심 못
 익이여/ 슈똥고혼 곁향혼이 쥌선내지 얼마든고/ 곁흥스 금두혼을 정스라고
 일흠흔나/ 부모유테 바든 몸이 흥흔이빅 못 전흥고/ 더러운 그 영흔이 독스지
 옥 칼산 지옥 면할손가/ 연이 연이 듯기도 비루헨다/ 아관박디 겸슈검스 어디
 두고/ 소위 남즈 기름머리/ 아미단장 의복사치 빈단보의 기쥑일세/ 먹장갓흔
 그 심장에 식육이나 치우랏쇼/ 흑싱 괴싱 정을 호려 띠전미담 괴만원/ 교지비
 애 물사다시 다 터치고 /부모쳐즈 구박이라 곁똥하면 의흔이흔/ 유식갓치 부
 즈헨데 소송전장 강상디죄 모르고셔/ 반포오가 붓그럽고 상체화가 붓그럽다
 (중략) 제인격은 싱각잔코 조강지처 상식업고 무식다며/ 각식죄 잡다못히
 음형으로 디죄얼거/ 의흔소송 참혹한 비상지원 복중절스 아니홀가

15) 당시 자유연애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사각모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자 상징으로서 구태인 ‘바람’이나 난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여학생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전근대적 가문의 중압으로 괴로워하던 이들에게 자유연애는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고 근대적인 개인의 확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보였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122~124쪽.

당시 남자들이 기름머리에 신식복장을 갖추고 자유연애를 주장하며 정사(情死) 사건을 벌였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기생의 정을 끝기 위해 전답을 팔아 교제비를 물 쓰듯이 쓰고, 부모 처자를 구박하며 걸핏하면 이혼을 주장하는 세태를 언급하며 분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 요구의 명분으로 ‘조강지처가 상식이 없고 무식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구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실질적인 삶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학교에 소속된 여학생들의 자유연애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학생이 종종 ‘이혼’ ‘결혼’ 등 사회현상과 결합되어 이해되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해준다.¹⁶⁾ 반대로 신여성들에게는 당대 사회담론 속에서 자유연애/결혼은 개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고, 자유연애를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혼하여 신식 가정을 꾸미는 것은 구습, 구질서, 구조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¹⁷⁾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생조감구가>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당시 여학생과 자유연애·자유결혼에 대한 구여성들의 부정적인 통념을 반영한다. 구여성들 입장에서는 자유연애란 가정의 해체나 남편의 상실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소문을

16) 여학생을 자유연애와 등식으로 파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을 정도로 자유연애는 큰 관심사가 되었다. 초기 여성교육과정에서 공적 영역으로의 편입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근대적으로 재규정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인 현모양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 내용 자체의 파악이 크지는 않다. 그보다는 자유연애가 실질적으로 신여성인 여학생들의 도전적 행위였다는 점에서 여학생과 동일시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다. 지식보다는 품행에 초점이 놓였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만큼 전통적 인습에 매여 있었으며 이는 남성 중심의 식민제국인 주류사회의 전락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윤미, 『근대적인 교육공간과 신여성: 여성의 공적 교육공간으로의 편입과 사회적 규범화』, 여/성이론 6, 2002, 62쪽.

17)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한국여성학』 22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06, 48쪽.

통해 “신여성의 우월성이 드러나는 곳은 천박함의 영역밖에 없고 그들은 같보나 창기와 다를 바 없다”, “남자로부터 남자의 노력의 대가를 빼앗아 간다”¹⁸⁾고 현실을 이해했던 면과 통한다. 이에 구여성들에게 학교라는 표상은 여성교육의 공적 제도화라는 학교의 실질적 측면보다 여학생의 자유연애 사건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함몰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따라서 작품 속에서 학교는 ‘남녀유별의 무화’의 장, ‘자유연애’의 장으로 이해된다.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신여성의 대명사로 자유연애의 표상이며, 조강지처에 대한 박대를 유발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또한 여학생은 남녀동등을 추구하는 존재들로서 남녀유별에 어긋나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이에 학교를 비롯한 신문명이 정신적인 가치나 전통적 유교이념과 대척적인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어머니로서 자녀를 경계하고자 한다.

금세상 두고보니 불효불우 관계업고/ 시부녀군 하더라도 직산거부 우등
되고/ 부모소유 욕심내여 계계상속 직촉하니/ 부모싱명 직촉이라 로천이 부
자한들 죄벌이 어디갈소/ 소위청년 가정디 제조상 세계연원 부지호고/ 족적
에 촌수부지 그아니 미물이가/ 신교육 괴술이며 외국말 통어마디/ 월급양
구복치와 적국에 노예빅틀/ 상등으로 자세하며 (중략) 무식무식 신스인스/
www.kci.go.kr

18) 이정희, 『근대여성지 속의 자기서사연구』, 『현대소설연구』 19권, 현대소설학회, 2003, 160쪽.

19) 특히 1930년대에는 연애 이혼문제, 생물학적 성, 기녀, 성매매 등과 관련된 가십성 기사가 넘쳐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건전한 사회비판능력을 상실한 식민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제강점기 여성상을 왜곡하고 여자 교육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경남, 『『신여성』 잡지를 통해 본 1920년대 여성관의 변화와 여자 교육』, 『우리말글』 43, 우리말글학회, 2008, 256쪽.

남녀동등 자유말은/ 제입으로 하면서도 여즈흐세 더하더라/ 상경여빈 그시
 딘난 존중한계 여자로다/ 내조로서 착한사람 허다허다 하것마는/ 동등이라
 말만흐계 뇌조를 뇌가듯나/ 안식만 취히다가 제비위만 맛쥬면서/ 현우가부
 부지흐니 지인지감 어딴잇나

지금 현실에서는 ‘불효불우(不孝不友)가 관계 없고 재산거부(財産巨富)가 우등된다’고 하여 부의 가치가 효우(孝友)의 가치를 대치해 가고 있으며, ‘족척(族戚)의 촌수(寸數)는 알지 못하면서 신교육 기술과 외국 말을 상등(上等)으로 대우’한다.

또한 ‘신사(紳士)들이 말로는 남녀동등을 부르짖지만 오히려 여자를 더 무시한다고 본다.

우미한 즈녀들아 남녀동등 밋지마라/ 천존지비 분명흐니 남존여비 업실
 손가/ 자유자유 해것마는 자유권을 뇌쥬던고/ 여아와 손녀들아 너의들 기를
 적애/ 남녀에 분간업시 만복영위 성덕가를 가리노라/ 군스국지 광구흐여 관
 관저귀 금슬우지/ 현인군즈 톱취하여 오복을 축슈흐미/ 낫낫치 하나갓치 빅
 구과속 가는세월/ 인생일세 머잔으니 어미비록 못헛스나/ 자녀욕심 딘만이
 나/ 아모려나 덕을 싹가 친의가 세덕연원 추락마라

신문명에서 말하는 신여성에 대한 존중이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남녀동등이 겉개명의 구호에 가까우므로 오히려 남존여비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남녀가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전통적 관계의 미덕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 집안의 조강지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구제도 속에서만인 것이다.

따라서 ‘신/구’라는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학교는 신문화와 동일시되어 이해되며, 특히 학교는 그 주체로 이해되는 여학생의 행태인 자유연애, 이

혼 등과 결합되어 인식된다. 이와 같이 학교가 여학생이라는 기표로 이해되면서 작가는 학교를 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2) 여성 간 사회적 위계의식의 형성과 지적 욕망

한편으로 학교가 여학생의 존재와 동일시된 결과로, 학교는 지적 욕망과 아울러 상대적 결핍의식을 환기하는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여학생의 지식을, 긍정적이기보다는 현학적인 걸맞게 가까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학생이 환기하는 지적인 면모는 작품 속에서 구식여성의 배움이 우월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제인격 유려하면 부인에 유무식 계관일가/ 경위지식 분명즈처 쇠부모 능
 멸흥괴/ 구고가장 한말하면 열말이나 덕답해도/ 경위로 돌려주고 여왕갓이
 덕접하니/ 양양자득 덕업이 요명요구/ 실상업난 그일음이 오릭될슈 잇실손
 가/ 제절로 각급히셔 정을 썩고 못견더셔/ 요리집 괴싱이나 연금장 괴싱이
 나/ 주점에 갈보되미 몇몇치고/ 학교공부 식일 썩는 무산부모 퍽퍽이장/ 달
 달이 학비잡비 무산영위/ 남녀갓치 바란거시 그아니 한심한가/ 천기일봉 잇
 썩라도 미기시덕/ 학식관작 아니쥬고 지식상등 요명흥여/ 신문잡지 광고붓
 쳐 세계일쥬 자랑이니/ 그무어시 영광이며 신식요명 가소로다/구식부녀 천
 쥬사적 규똥에 칭이지지/ 세계여흥 양두홀가

“제 인격 유려(流麗)하면 부인에 유무식(有無識) 계관(係關)할까”라는 발언에서 다시한번 남편이 부인의 무식함을 문제 삼는 사정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술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학생의 허명(虛名)과 실덕(失德), 그와 대비되는 구식 부녀의 미덕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상식 없고 무식하다’고 하여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지식을 갖춘

여학생과의 자유연애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출신’인 여학생들은 새로운 근대적 지식으로 떠오른 ‘일어마디’를 구사하는가 하면 신식 여성의 외양을 갖추으로써 구여성들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에는 신여성인 여학생에 대한 동경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자가 ‘겉모양 학생행위’로서 시체(時體)를 따라서 ‘목도리와 소복(素服) 단장’을 하고 여학생을 추수하는 풍조²⁰⁾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은 이로 인한 것이다. 즉 학교는 여성들 사이에 지식뿐 아니라 나아가 외양의 차별성을 부가하고,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학교의 출현은 여성 간 차이를 생성시켜 사회적·문화적 위계의식을 형성하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그런데 작자는 이러한 여학생들의 지식은 실질을 갖추고 못하고 허명에 가깝다고 보며, 여학생이라는 이름과 그 실질의 차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학교 공부’를 시키기 위해 그 부모는 “달달이 학비 잡미 무산 영위 남녀 갖치 바란 거시 그 아니 한심한가”라 한다. 여학생은 경위와 지식이 분명한 것을 자처하지만 그 행실은 덕이 없다. ‘시부모 능멸하기, 구고(舅姑) 가장(家長)에 맞서기, 여왕 같은 대접 요구’로 요구 많고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으로 표현된다. 결국에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요리집과 연금장 기생이나 주점의 갈보로 전락해간다고 한다. 즉 여학생의 학교 공부는 남녀가 동등해지기를 바라는 욕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많은 비용

20) “여아와 손아들아/ 신구식에 상식업시 것모양 혹싱형위/ 화휴창기 시체보아 목도리 소복단장/ 부모구고 가장지하 사위중도 모르고셔/ 시부녀의 휴형이요”

21) 『근우』창간호(1929) 질의란에는 ‘양머리를 틀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상담을 해온 낙원동 김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공부는 하고 싶지만 우글대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하고 더구나 시부모도 학교가 뭐냐 벼락을 내리는 처지라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인숙,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시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279쪽.

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름에 값하는 미덕이나 지적인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여학생의 대척적 지점에 있는 구여성을 무식하다고 하여 낮추어 보고 하등 대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명 내지 신지식과의 대별 속에서 ‘구식’의 우월함을 설파한다. 지금 옛 지식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학식 관련 관작을 안 주고, 신문잡지에 광고를 내어 세계일주나 자랑하는 신지식을 상등이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자는, 구식부녀가 천추 사적(千秋 事迹)에 대해 배우는 것이야말로 으뜸이라 발성한다.

이어 ‘신지식’만이 대우받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다.

군자되라 권하즈니 공맹안중 반덕하고/ 성현서 비소하고 숙익이라 하세
 호고 문장되라 권하즈니 칙상물림 바로라니 어척업고 가소롭다/ 한문을 업
 시자니 하도나서/ 신출기물 천명업시 업서질가/ 진시황 분시서씨 선비까지/
 삭화폭형 흐여스나 다시문화 열녀스니/ 동서양 퍼진문즈 세계인중 다업실
 가/ 여아와 손녀들아 숙녀되라 권하즈니/ 숙익등한 하등디우 유한덩덩 슬디
 업고/ 단언완보 병신디우 가리치란 바히없다/ 관저장에 요숙녀 군즈호귀 일
 너스나 군즈가 어디잇서 숙녀가 되깃느냐/ 순님금 나계시미 황영이비 여등
 성인/ 왕세문무 나계시미 태님티사 만고숙녀/ 미회포사 누짝인고 역역히 헤
 아리면 그아니 그럴것가

신지식만을 높이 평가하고 이전의 지식체계를 ‘하등 대우’하는 풍조에 대해 울분을 토로한다. 지금의 사회분위기는 성현의 서적을 비웃고 공맹 안중(孔孟顔曾)을 반대하며, 한문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신사’와 ‘여학생’의 대극적인 위치에 있는 ‘군자’와 ‘숙녀’는 하등 대우를 받고 있지만 순 임금의 비인 ‘아황(娥皇) 여영(女英)과 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妊)과

왕비 태사(太似)야말로 부덕의 여성상이자 만고의 ‘숙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자가 있어야 숙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 여성들의 무식함을 탓하는 남성들의 의식적 분발을 촉구한다. 오히려 전통적 예법인 중매혼에서 지식이 없다 하여 부인을 버리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²²⁾

그리하여 이 작품에서 자기서사 중 시대인식을 토로하는 부분의 확장은 자신의 삶을 ‘구식’이자 ‘하등’으로 평가하는 세대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성격을 띤다. 이는 예법과 미덕을 갖추고 있는 ‘숙녀’들의 삶이 신지식보다 낫다는 의식에서 연원한다. 이는 당대 구여성들에 대해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고 하여 조강지처를 박대하는 풍조에 대항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 시대 사회 남성들이 구여성들을 규정한 ‘무식’의 정의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자각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발한다는 면에서 주체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신지식에 대해 구여성의 앓 내지 미덕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긍만으로는 학문과 지식, 나아가 공적 활동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규방가사 작가들에게 지식과 학문 그 자체는 늘 절실한 근원적 바람이었고, 전통적 체제 속에서 여성에게 학문과 지식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은 필연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작품 <생조감구가>에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회고하는 목소리에 자궁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탄의 목소리가 곳곳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본원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22) “교남화별(嶠南華閨) 호가문(豪家門)에 준수가랑(俊秀佳郎) 골나 썩어/ 군즈호구 작비(作配)하니 못붙어라 어느 남즈 지식업다 바리든고”

교남딴가 꺾이촌에 현조현부 즈손되여/ 이목총명 남자던들 도덕문장 연
원으로/ 세계끌지 하올거슬 일싱사옵 무엇인고/ 깊고깊은 도장안이 웅장디
량 슬씩업고/ 총명지혜 무용이니 인유의 가당한가/ 무비무의 주스시에 침선
방적 그체지님 가가나나 가소롭다

도덕과 문장으로 무장하고 공적 무대인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싶지만
깊고 깊은 도장 안에 갇혀 웅장한 도량을 펼칠 길 없고 총명한 지혜가 무
용이며, 침선방적으로 소일하며 배우는 것이 가가나나일 뿐인 것이 가소
롭다고 한다. 즉 단호하고 자궁의 목소리의 한편에 공존하는 자탄의 목소
리는 규방에 갇히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처지와 학문이 아닌 “가
가나나”만 배울 수밖에 없는 결핍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특히 작자 이
사호가 현실인식을 피력하고 학계를 비롯한 세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은 곧 학문과 지식에 대한 욕구 내지 사회적 인정욕구에서 나왔음을 감안
할 때 그 심리적 갈등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³⁾

이런 점에서 볼 때 여학생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지식’의 문제는 작가
가 느끼는 상대적 결핍감 나아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들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외국어를 구사하
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짐
작된다. 이로 인해 여학생들이 지닌 지식에 대응되는 자신들의 덕목을 비
교하고, 더욱 당당한 포즈로 목소리를 가다듬어 구여성의 부덕이 우월함
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23) “불초한 우리형테 엇지타 여즈되여 철천지한 땃첫난고/ 우리몸 죽고죽어 의목총명
남즈되여/ 출장입상 현양호여 자득독립/ 세계를 통솔하여 우리나라 회복하여/ 예의
문명 삼강오륜 다시말켜/ 이한을 시시리라”와 “엇지한 나의사주 양기를 너머타서/ 피
면은 여즈라도 중심은 의기남자/ 만고사리 통달한들 일촌유장 구기답야/ 지기를 펼길
업서 한탄뿐이로다/ 팔즈를 못속이여 여즈장슈 슈씩음가” 등에서 사회적인 활동욕구
를 피력한다.

4. 근대이행기 구여성과 학교

1) 기표로서의 학교, 반감과 동경의 공존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신문화의 대표적 상징인 학교가 여학생의 존재와 동일시되어 이해된다. 여학생 존재는 개성과 자유로움의 한 표지인 자유연애로 특징되고 있어 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여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행위는 남녀동등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하지만 동시에 여학생은 지식의 문제를 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여성의 지혜와 덕망이 이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표면적으로 신여성인 여학생이 지니는 지식의 실효성에 부정적이지만, 구여성들의 지혜와 부덕을 강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여학생 존재가 환기하는 지식에 대해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대의 사회분위기가 구여성들을 낮추어 보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교’가 여학생의 존재로 인해 새롭게 여성 간 사회적·문화적 위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 여타 규방가사 작품에서는 여학생에 대해 상대적 결핍감 내지 그들에 대한 동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들 속에서 언명된 학교는 여학생의 존재와 결합되면서 반감과 동경이 뒤섞인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하는 기표이다.

신학시뵈 녀학생은 낭머리 곱기췌고/ 밋시잇는 칙보달이 시간마췌 학교
가셔/ 일어선어 지리슨술 칙릭칙리 빈온후의/ 녀중박스 학스되야 기명발달
하거니와/ 우리는 지조업셔 학식이 전혀업고/ 이세월이 넷기나셔 흥변운동
못히보고/ 구식만 죽힌다고 숙맥절노 되깃고나/ 이짓저짓 다못흐면 무엇스

로 즐거흐고/ 이야기나 서로노나 손벽치고 웃고보니/ 아모것도 슬티업다
 - <동뉴상봉가>²⁴⁾

여학생은 ‘양머리 곱게 빗고 맵시 있는 책보달이를 들고 시간 맞추어’ 학교로 향한다. 학교에 가서 ‘일어(日語), 선어(鮮語), 지리, 산술을 배우고 여중(女中) 박사(博士), 학사(學士) 되어 가는’ 여학생의 모습과 자신의 ‘재조 없고 학식 없는’ 모습을 비교하며 한탄한다.

구여성이 공적 제도로서의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한정적이었으므로,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구가정” 이자 “구식” 여성들이었던 이들은 결핍감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들이 구식’이라는 표현에서 스스로에게 ‘낡은’ 또는 ‘뒤떨어진’이라는 형용사로 자신들을 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⁵⁾

여기 나타난 화자의 목소리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여 이혼을 요구 당하게 되었다고 자탄하며 자신도 일찍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쇠골식씨 설은 타령> 속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24) 고전자료편찬실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635쪽.

25) 이러한 결핍감은 다음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자일신/ 구가정에 툇어나서 규등싱할 계속하니/ 허방이 무어신가 구숙이 이구하다/ 십오륙년 부모슬하 소학이 무어시나/ 공과대학 침선시오 화학실습 음식이라/문학방면 보자하면 가나다라 십오항에/ 기억이은 군티숙이 학박스 느파스 로다/ 동경제티 빅일유학 몽상도 아니치만/ 우리지허 소학교도 어이하여 못단였나/ 태빅산하 청등이에 풍조가 느졌구나/ 자녀교육 부모시라 주위스정 어이하라/ 원망할 곳 바이업서 국어산술 한문자를/ 여가보아 자습흐니 지조장 업술손야/ 일취월장 하여스니 졸업장은 업슬망정 불러올것 전혀업다/ 그러나 여즈유흥 고금이 달은소나/ 유수 갖은 저광음이 도요기가 되었셔라” <화전가 2>(1938), 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內房歌辭)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5집,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452~453쪽.

나도 어려 남과 가지 학교 가여 배웠드면/ 이런 번고 업슬거슬 후회흔들
 슬 곳 있나/ 베플찌는 지나갓너 어릴 찌는 지나갓너/ 찌 가고 님 버리니 나
 의 팔즈 어이 할고/ 가련니 쪽흐도다 님을 썬나 어이 가며/ 가라니 원통하다
 이집 썬나 어디 가노²⁶⁾

이 작품은 구여성의 처지를 보여주는 가사로, 근대이행기에 널리 유행
 했던 가사이다.²⁷⁾ 남편에게 별안간 이혼 통보를 받은 구여성인 화자는 어
 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다. 아마도 무식
 을 이유로 이혼 통보를 받은 듯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앞서 <생조감구
 가>에서 비판했던 세대와 일치한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화자의 태도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투영된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후회
 가 남편의 이혼통보를 통해서 환기된다는 점에서, 자유연애의 대상인 여
 학생의 존재와 대등해지고 싶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⁸⁾

이렇게 구여성들은 학교를 여학생 존재와 결합시켜 이해하는 가운데
 학교를 이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식인 학교가 무엇보다 여학
 생 존재와 연결되어 이해되면서 지식에 대한 열망을 환기하며 상대적 박
 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시각에서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
 보기도 한다.

26) 고전자료편찬실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14쪽.

27) 서영숙, 『근대전환기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인식』, 『어문연구』 38, 어문연구회, 2002, 208쪽.

28) 또 다른 작품 <녀자의 설움> 속 여성화자는 공부 못한 것을 허물로 받아들이면서 여성화자 스스로 자신이 서야할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다. “내 자체 힘투은 공부 못한 것이 허물이라고 발언하며 교육 받지 못한 여성으로서의 콤플렉스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받아 서로 의사가 통하는 사이라야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신식 부부관계를 주장했던 당시 남성의 지배담론을 결국 수용한 셈이 된다. 조세형·정인숙, 『<시골여자 슬픈사연> <녀자의 설움>에 나타난 근대전환기 구 여성의 위기와 목소리』, 『국어교육』 133, 2010, 200쪽.

따라서 이 시기 구여성들에게 학교는 교육활동의 공적 기관이라는 기의보다는 주로 그 기표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존재로써 표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공적 영역으로서의 '기의'(記意)와 사회적 자아

당대에 학교가 함의하는 가장 중요한 파장 중의 하나는 여성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공적 영역이라는 점일 것이다. 학교가 제공하는 남성과의 동등한 삶, 그 핵심은 지식과 교육의 제공, 나아가 사회적 활동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학교의 기의는 여학생이라는 기표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어 이해된다. 작품 속에 나타난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접근성이 거부된 상황에서 '풍문'과 함께 그 기표에 압도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여성들에게 학교는 자주 사회적 활동을 담보하는 공적 영역의 공간으로서보다 신여성인 '여학생'의 배타적 공간이며, 때로는 추문의 공간으로 다가왔다.

또한 작품 <생조감구가>에서 보면 사회적 활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유교이념에 근거하여 남녀의 역할, 내지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인식으로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를 드러낸다.²⁹⁾ 여학생은 이러한 규범에 대해 거부하는 존재이므로 이에 반감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여성들은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역할에 자족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욕망은 남성들의 영역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1930년대 이후 전시동원체제기에 접어들며 제국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유포되고 이 시기 여성들은 모성이데올로기에 지배되는 것으로 이

29) 최송설당 등 이 시기의 규방가사 작가들이 여전히 남성동경 내지 남성선망을 통해 사회적 욕망을 피력하고 있는 점도 이와 통한다.

해된다.³⁰⁾

따라서 이 시기 규방가사 작가들인 구여성은 학교와의 거리와 학교에 대한 제한된 이해 속에서 사회적 자아 또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의식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갔는지 의문을 남긴다. 구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활동의 미미함과 내면화된 유교이념을 고려해 볼 때, 규방가사 작가들이 보여주는 현모양처에의 지향은 규방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폐쇄되어 전사의 위대한 어머니라는 모성이데올로기에 포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작품 <생조감구가>에서 ‘가문’ 내지 ‘전통’과 ‘개인적 자아’는 많은 부분 개인의 자기존중의식으로 수렴되며 공존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전통을 이루고 있는 가족과 집안, 가문의 가치는 개인을 억압하는 인습에 한정되지 않고 작자 자신의 개인적인 자부심, 자기존중의식 형성의 기반이 된다. 저자에게 가족과 가문이라는 집단적 가치는 단순히 우월적인 사회적 지위나 인습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 성장과정 속 부모의 사랑과 양육태도, 부모의 학식과 성품 등의 복합적 성격을 띠며 혼인 후 시집 중심의 생활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자존감을 형성한다.

또한 혼인 후에 한 가문의 성가는 내간살림을 유지하고 삶의 지혜를 발휘해온 자신의 이력과 능력의 집적물이다.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육아와 자녀들의 성혼을 비롯하여 집안일을 해온 것은 희생적인 모성이데올로기로 귀결되기보다는 종종 개인적 성취감과 연결되어 있다. 작가의 성취감은 집안을 지켜낸 삶 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 결과로 자신의 삶을 희생과 인고의 서사로 그려내기보다는 성취와 극복의 서사로 수렴시킨다. 이점에서 집안을 운영해온 능력을 드러내는 자기서사는 대외

30)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학생의 유행이 점차 시들해지고 전시동원체제에 접어들면서 현모양처이념과 모성이데올로기가 의도적으로 권장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구여성이 지닌 미덕이 새롭게 조명 받고 예찬되었다. 김경일(2004), 앞의 책, 54쪽.

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와 함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기 확인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구여성의 사회적 활동 욕망은 가문의 범위에서 발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문의 현양이라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욕망은 유교 이념을 근간으로 한 수직적 위계 질서 속에서 '왕조'와 상동관계인 '나라'로 확산된다. 여기서 가문과 국가는 개인을 수단화한 전체주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인정욕구와 결합된 가치라 할 수 있다. 규방가사 작가들에게 개인의 자의식, 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민족의식은 대립적 위치에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립하고 있는 가치들이다.

이는 다수의 신여성들이 국가 내지 민족을, 전근대적 가부장제의 인습 내지 전통과 동일시하면서 민족의식을 약화시켰던 것³¹⁾과 변별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구여성인 작가에게 전통에 대한 존중은 일면 유교의 내면화에 따른 가부장제의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면서도 사회현실에 대한 시야를 잃지 않는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품 속 '나'는 현모양처를 지향하면서도, 자신을 수단화하여 제국주의로 수렴되는 국민 자녀의 어머니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가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상하등분'이라는 중세적 위계의식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보수성을 보여주면서도, 그 의식은 사회적 인정욕구를 바탕으로 가문과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 혹은 개인으로서의 자의식과 민족의식은 사이 좋게 공존한다.

이런 점에서 규방가사 작가들의 자화상은 일제가 유포한 모성이데올로기가 조형해낸 '현모양처'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당

31) 반면에 신여성의 의식은 민족의식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사이에서 분열되었다. 조선의 신여성들은 민족과 여성, 혹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화해하거나 수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녀 안에는 근대 가정을 현실화하고 있는 서구와 일본에 대한 동경이 존재한다. 김경일(2004), 앞의 책, 92쪽.

시 중앙 문단의 여성지들에서 자기서사가 유행하면서 복고적 취향으로서의 현모양처로 자신을 그려냈던 경향³²⁾과 그 층위를 달리한다. 규방가사 속 작가들은 한 가문의 성원으로 자신을 의식하면서 그 의식은 자연스럽게 외부현실로 확산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항일의식을 표명하였다.³³⁾

5. 맺음말

이미 1910년대에 근대의 타자적 존재로 규정되었던 여성존재들인 왕조의 운명과 함께 존재의의를 상실한 늙은 상궁, 낡은 가족제도에 유폐되어 있는 농촌여성³⁴⁾들은 바로 이 시기 규방가사 작가들이다. 근대이행기의 구여성들이 ‘학교에서 분리된, 정체(停滯)된 여성들’³⁵⁾이라는 외부적 시선은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부여된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 여성은 신여성을 비난하는 기제로서 정숙함과 순종의 미덕을 갖춘 존재로 인

32) 현모양처형의 여성은 일제의 여성정책이 목표로 삼은 여성상으로서 일제는 식민통치에 순응하고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적합한 여성을 양치현모주주의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고 하였다. 과정에 이르지 않은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아내의 일방적인 회생과 헌신, 인내를 강조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와 같이 중앙의 여성지에서는 1930년대 후반 복고적 취향으로서 모성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현모양처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일제의 전시체제 가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위대한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유포시켰기 때문이다. 이정희 (2003), 앞의 논문, 164쪽.

33) 이러한 사례들은 만주망명가사에서도 확인된다. 고순희, 『만주망명과 여성의 힘-가사문학 <원별가라> <위모소>, <신신티령>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103~132쪽.

34) 이형태,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337쪽.

35) “지상이 여즈들도 여학교을 충설하고 / 조왕모리 분주하야 기명발달 천명하고 / 치마중안 부지각도 혼양성중 분주하니 / 지각업난 그너들은 무심하기 노단말가”, <상원화수회답가>,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13권, 655번, 아세아문화사, 1999, 41쪽.

식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근대적인 지식과 신가정을 필요로 할 때는 전근대적인 가족 담론과 사적 영역에 갇힌 비자율적인 존재로 매도되기도 했던 것이다.³⁶⁾

하지만 근대의 타자적 존재로 규정된 늙은 궁녀였던 최송설당은 이후 여성 사회사업가로 전신하여 학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최송설당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 의식은 오히려 ‘늙은’ 전통인 유교적 이념에서 발원하며, 가문의 현양을 비롯한 사회적 인정욕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⁷⁾ 이러한 점은 이 시기 규방가사 작가들을 비롯한 구여성들의 의식세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³⁸⁾

본 논문에서는 학교라는 근대적 공간의 대두 속에서 구여성들은 학교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기표’와 ‘기의’의 개념을 통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사호의 <생조감구가>를 대상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분석하고, 다른 규방가사 작품들에서 학교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작품인 <생조감구가>에서 구여성인 작가는 학교를, 여학생 존재라는 기표를 통해 이해하였다. 작품 속 학교는 당대 세대 풍속을 이루는 한 단면이자 ‘구식’과 대비되는 신문화의 하나로, 신여성인 여학생의 존재와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학교는 자유연애, 이혼 등의 세대와 결합된 장으로 인식되었고, 학교를 윤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여학생 존재는 지적 욕망과 아울러 상대적 결핍의식을 환기

36) 조세형·정인숙(2010), 앞의 논문, 198쪽.

37) 유정선, 『근대기행가사연구』, 보고사, 2013, 349~355쪽.

38) 이러한 문제제기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민정, 『일제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4, 여성문학학회, 2005, 198쪽.; 조세형·정인숙(2010), 앞의 논문, 202쪽.

하고 있기도 하였다. 학교는 구여성과 신여성을 가르치는 외연적 지표가 되었고, 여학생의 출현으로 인해 여성 간 사회적 위계의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당대에 구여성의 무식이 이혼요구의 명분으로 내세워졌던 상황에서, 작가는 여학생의 신지식이나 도덕성보다 구여성의 지혜와 부덕이 우월함을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옹호한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자궁이 자신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지식과 학문 자체에 대한 욕망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여학생의 존재가 환기하는 지식의 문제는 구여성에게 상대적 결핍감을 조성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여학생 존재로 표상됨으로써 학교가 실제적으로 구여성들의 의식세계에 미친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구여성들의 사회적 자아가 정체되었다고 보는 것은 실상과 다르다. 당시에 구 여성은 희생과 순종의 상징이자 정체된 여성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적 영역에 갇힌 현모양처나 수단적 의미로서의 희생적 모성과는 다른 모습이다. 곧 개인으로서의 자의식과 ‘가문’ 내지 ‘국가’라는 집단적 가치를 양립시키면서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시키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고전자료편찬실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14쪽·635쪽.
- 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싱조감구가>, 『내방가사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5집,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410~423쪽.
- _____, <화전가 2>, 『내방가사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5집,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452~453쪽.
- 고순희, 『만주망명과 여성의 힘-가사문학 <원별가라> <위모스>, <신식트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103~132쪽.
- 김경남, 『『신여성』 잡지를 통해 본 1920년대 여성관의 변화와 여자 교육』, 『우리말 글』 43, 우리말글학회, 2008, 256쪽.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122~125쪽.
- 김민정, 『일제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4, 여성문학학회, 2005, 198쪽.
- 남상권, 『생조감구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288~294쪽.
- 박애경, 『규방가사의 지역별 변주와 글쓰기 방식의 다양화 1-경화사족 여성의 규방가사 창작과 향유』,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220쪽.
-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4쪽.
- _____,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 『여성문학연구』 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11쪽.
- 서영숙, 『근대전환기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인식』, 『어문연구』 38, 어문연구회, 2002, 208쪽.
- 유전선, 『근대기행가사연구』, 보고서, 2013, 349~355쪽.
- 이상택, 『개화기 서사가사시고』, 『진단학보』 39, 진단학회, 1975, 139~160쪽.
- 이윤미, 『근대적인 교육공간과 신여성:여성의 공적 교육공간으로의 편입과 사회적 규범화』, 『여/성이론』 6, 2002, 62쪽.

- 이정희, 『근대여성지 속의 자기서사연구』, 『현대소설연구』 19권, 현대소설학회, 2003, 160쪽.
- 이형태,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337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13권, 아세아문화사, 1999, 41쪽.
- 장인진·남상권, 『<생조감구가>의 작가고증과 작가 가문의 항일운동』, 『반교어문연구』 20집, 2006, 141~143쪽.
- 정인숙,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시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집, 한국언어학회, 2010, 279쪽.
-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칩/제이부인’』, 『한국여성학』 22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06, 48쪽.
- 조세형·정인숙, 『<시골여자 슬픈사연> <녀자의 설움>에 나타난 근대전환기 구 여성의 위기와 목소리』, 『국어교육』 133, 2010, 198~202쪽.

ABSTRACT

Gyubanggasa in modernization age and school as a public system
- Focusing on <Saengjogamguga> -

Yu, Jeong-sun

This study examines perception of school by women in modernization age, by focusing on gyubanggasa created in the time, <Saengjogamguga>. Beginning to be established at the end of 19th century, school was a product of modern system, where knowledge and culture was educated. Therefore the keyword "School" in this age reflects the passion of women for knowledge, as well as understanding of public system and desire for social activity.

In <Saengjogamguga>, where the writer Sa-ho Lee looks back at her life, she as a woman of old age understands school in standpoint of a female student. School, an aspect forming the social customs of the time, was one of new cultural elements in comparison to the 'old ways'. School was understood as a symbol that could be identified with the existence of female student, a new woman. Consequently school was perceived as a place combined with social life, such as free love and divorce, resulting people to look at school in ethical point of view. At the same time, being conscious of existence of female student was also awakening intellectual desire and awareness of relative deficiency. As a result, school as an idea was overwhelmed by the symbol of female student existence, and people had double perspective when understanding school.

Because of this, emergence of school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in consciousness of Old Women, but it did not cause stagnation of their craving for social activity. Women of old generation was symbol of sacrifice and obedience, and was understood as stagnant female. Especially in the 1930s, under wartime mobilization system of imperialism, virtue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was purposely

encouraged. However, Old Women intended to realize their individual social recognition while maintaining the collective value of tradition and family. Consequently they expressed social responsibility and anti-Japan consciousness. This is different aspect from wise mother/good wife trapped inside private area, or sacrificial maternity as a means.

Key Words modernization age, gyubanggasa, *Saengiogamguga*, school, old woman, knowledge, desire for social achievement, individual identity, female student

논문투고일 : 2015. 3. 25

심사완료일 : 2015. 5. 27

게재확정일 : 2015. 6. 4

